

# 파리 상젤리제 거리와 콩코드 광장 정원화 계획

**유무종**

프랑스 도시설계사·건축가,  
파트릭 코다 건축사무소 재직

2019년도 상젤리제 거리 위원회(Le comité Champs-Élysées)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상젤리제 거리 일일 방문자 10만 명 가운데 5%만이 파리에 사는 사람들이고 68%는 관광객, 27%는 거리에 늘어서 상점에서 일하는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15ha에 이르는 상젤리제 거리의 정원들은 몽소(Parc Monceau) 공원 방문자 수의 40분의 1에 불과하다.

상젤리제 거리가 파리시민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거나 앞으로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될 공간으로 조사된 결과도 있다. 프랑스 여론연구소(L'Institut Français d'Opinion Publique: IFOP)가 파리시민을 대상으로 수행한 2019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의견 중 39%가 상젤리제 거리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많은 시민이 상젤리제 거리에서 '관광', '시끄러운', '인공적' 그리고 '스트레스'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었다. 이처럼 파리 도심의 상징인 상젤리제 거리는 오늘날 관광객들에게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으나 현재 살고 있는 파리 도시민에게는 점점 불편해져 가는, 그래서 꺼리는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거리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파리의 노력**

이러한 상황을 크게 우려한 상젤리제 거리 위원회 소속의 경제전문가와 문화 관계업자들은 2018년 여름, 건축사사무소 PCA-STREAM의 건축가 필립 샴바르타(Philippe Chiambaretta)에게 상젤리제 거리를 다시 한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로 바꾸어 줄 설계안을 요청하였다.

1년 반의 준비 작업과 1억 유로(약 1,3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30년까지 상젤리제 거리를 새롭게 단장하려는 계획으로 세워진 상젤리제 거리 설계안을 통해 다시금 거리에 사람이 모여 들고 도시민과 관광객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래서 자신의 도시공간을 포기했던 파리지앵들에게 그들의 오랜 자부심 같던 공간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시키려 하고 있다.

이후 이 계획은 2021년 1월 10일, 파리시장 안 이달고(Anne Hidalgo)가 <일요저널(Journal du Dimanche)>과의 인터뷰에서 "콩코드광장과 상젤리제 거리에 '특별한 정원(Jardin extraordinaire)'을 만들겠다"라고 도시개발정책을 발표한 데 힘입어 더욱더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특히 2024년 파리올림픽 일정에 맞추어 사업을 완성시키려 하고 있어 많은 시민의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또한 예산은 기존의 1억 유로에서 2배 이상이 오른 2억 2,500만 유로(약 3,162억 원)가 되었다.

©PCA-STREAM



개선문, 상젤리제 거리, 콩코드광장 정원화 조감도: 변경 전(상), 후(하)

극도의 비움과 극도의 장소를 동시에  
(À la fois hyper-lieu et hyper-vide)

설계자 필립 삼바르타는 상젤리제 거리의 양끝인 개선문과 콩코르드광장을 비워 상젤리제 거리를 더욱 변화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의 주요 아이디어는 매일 6만 4,000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거리 양끝에 그저 거대한 원형 교차로(rond-point) 정도로 사용되어 오던 두 광장의 차량용 공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보행자를 위한 공간과 정원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하여 도시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으로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았다.

삼바르타는 이 계획에 대해 “병든 도시의 상태에 대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라 말하며 빅데이터(50명의 전문가, 회사, 과학자, 예술가, 디자이너를 통한 초학문적 접근)를 통해 매우 광범위한 관점에서 시작하여 각 매개 변수를 정밀하게 정량화하였다.

먼저 도로 부분은 기존의 8차선을 4차선으로 줄이고 여기서 얻게 되는 공간에서 햇볕이 잘 드는 쪽을 새로운 테라스로 개발한다. 이 테라스를 중심으로 한편에 자전거전용도로가 놓이며 작은 개울도 조성된다. 개선문의 에투알광장 주변에 여러 개의 파빌리온과 정원을 만들어 광장을 여름에는 해변으로, 겨울에는 아이스링크로 사용할 계획이다.

콩코르드광장에 360그루, 에투알광장에 1,132그루의 나무를 심어 차량전용공간을 52% 줄여 광장의 보행화를 이루고, 상젤리제와 접해 있는 24ha의 정원을 재개발(녹지를 기존보다 3배로 늘림)하여 상젤리제 거리와 연계한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로써 약 20년 동안 재개발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자동차 소음과 공해에 묻힌 도시의 주요 공간을 환경과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회복시켜 다시금 파리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파리시장 안 이달고는 이 주요 작업이 두 단계로 진행될 것이라 발표하였다. 먼저 2024년까지 콩코르드 광장의 녹지화를 진행하고, 이후 2030년까지 상젤리제 거리와 개선문광장의 녹지화가 추진된다.



개선문 에투알광장 정원화 조감도

국내의 시사점

2019년에 상젤리제 거리 위원회가 발표한 이 프로젝트는 정치적 의지가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운 프로젝트였다. 따라서 협회는 2020년 지방선거에 나가는 정치인들과 긴밀히 접촉하였고,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이제 실현을 앞두고 있다. 이번 상젤리제 거리 정원화 계획은 도심의 장소에 대해 오래전부터 연구를 진행해 온 사람들의 의지가 정책을 통해 실현된 좋은 사례다. 이번 연구를 해온 사람들과 정치인 그리고 모든 파리시민은 지금 도심의 상징적 장소에 두 단계에 거친 대대적 녹화 작업을 진행해 장소의 회복을 이루고, 새로운 세대의 파리시민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이전의 영광을 되찾을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시발전의 기회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도시에 관심이 많아지고 여러 계획이 세워지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 개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 프로젝트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도시의 명소는 과연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도시에 사는 사람일까,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일까? 도시의 발전은 누구를 위한 발전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어찌면 너무도 쉽고 빠르게 답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진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도시 변화의 움직임은 언제나 그곳에 사는 사람과 그 지역을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한 이들, 이를 실현할 정책이 함께 있어야 가능하다. 시간이 들더라도 이들 서로의 긴밀한 교류를 위한 움직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1 상젤리제 거리 위원회(Le comité Champs-Élysées) 홈페이지. <https://www.comite-champs-elysees.com>
- 2 필립 삼바르타(PCA-STREAM) 홈페이지. <https://www.pca-stream.com/en/projects/champs-elysees-study-48>
- 3 <https://www.20minutes.fr>
- 4 <https://www.admagazine.fr>
- 5 <https://www.connaissancesarts.com>
- 6 <https://about.make.org/pourquoi-cette-consultation/reenchanter-champs-elysees>

©PCA-STREAM